

Merck-대웅, 당뇨치료 복합제 협력

미세입자로 흡수 빨라 혈당조절 효과 ... 미국에서 2년간 800만명 처방

Merck의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반스(Glucovance)>와 대웅제약의 <글루리아드(Gluriad)>의 공동 발매 앞두고 <신개념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복합제>라는 제목의 런칭 심포지움이 열린다.

Merck는 9월26일 힐튼호텔에서 가톨릭의대 내과 강성구 교수와 성균관의대 내과 김광원 교수를 좌장으로 <임상에서 병용 투여에 대한 고찰(Dr.Harry Howlett/Merck UK)>과 <제2형 당뇨 치료에서 글루코반스의 임상 경험(Dr. George Dailey/UC San Diego)>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글루코반스/글루리아드는 세계적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파지(Glucophage)의 개발기업인 독일 Merck KGaA에 의해 개발돼 2000년 8월 미국에 발매된 메트포르민과 글리벤클라미드의 복합제로 Merck만의 High-Tech R&D를 도입해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다.

미세화한 4가지 크기의 글리벤클라미드 입자를 메트포르민 내에 균일하게 분포시켜 기존 글리벤클라미드에 비해 빠르게 흡수되며, 저용량으로도 식후 혈당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뿐만 아니라 공복에도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03년 8월24일-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당뇨병연맹 총회(IDF 2003)에서 영국 아스톤대학의 클리포드 베일리 교수와 미국 텍사스 베일러대학의 알란 가버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메트포르민과 글리벤클라미드를 각각 병용해도 잘 조절되지 않은 환자를 글루코반스/글루리아드로 전환할 때 당화혈색소(HbA1c)가 1.3% 더 저하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복약순응도 또한 유의성 있게 높아졌다.

또 글루코반스/글루리아드로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Rosiglitazone을 병용한 뒤 심각한 부작용 없이 추가적으로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FPG)을 각각 0.9%, 2.3mmol/L 낮추어 혈당조절 효과를 얻어냄으로써 당뇨 치료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글루코반스/글루리아드는 실제로 발매 후 최근 2년 동안 미국에서 800만명이 넘는 환자에게 단독 처방돼 미국시장의 대표 품목으로 진입했으며, 2001년 9월 TZD(Thiazolidinedione)과의 병용이 FDA에서 승인됨에 따라 더욱 많은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Merck와 대웅제약에서 <글루코반스(Glucovance)>와 <글루리아드(Gluriad)>라는 제품명으로 11월부터 공동 판매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5>